

푸른 전주 시민들과 함께 가꾼다

시, '수목관리의 날' 행사... 유치원생 등 시민 200여명 무궁화·꽃무릇 함께 심고 비료주기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손으로 도시 곳곳을 푸르게 가꿔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효자동 문화대공원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가는 '수목관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생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나라꽃 무궁화 120주와 소나무 주변에 꽃무릇 5000여 본을 심고, 봄철 식목일에 식재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유치원생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꽃무릇을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도심 곳곳의 작은 화단에도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6,000여본의 꽃무릇을 배분해 꽃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태도시 푸른 전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길중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정은 "가을철은 나무심기 좋은 계절로 수목관리의 날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10일 효자동 문화대공원 일원에서 '수목관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생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나라꽃 무궁화 120주와 소나무 주변에 꽃무릇 5000여 본을 심고, 봄철 식목일에 식재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를 실시했다.

'전주 시내버스 혁신과 변화 위하여'

시민의버스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주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출범한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버스 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 시내버스 혁신과 변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주 시내버스와 시민의버스위원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생각나누기에 이어 전주 시내버스 관련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진 '혁신과 변화-현장의 소리 듣는다' 등이 진행됐다. 또, 각 분과위원회 회의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혁신과 변화-현장의 소

리를 듣는다' 시간에는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정의 '2018년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문용호 전일여객 대표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의 필요성'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장의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의 타당성'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전주 시내버스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시간과 분과워크숍을 통해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전주 시내버스의 혁신과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고질적인 파업 등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운수종사자의 1일2교대 추진 △노선개편 △재정심의 등 시내버스 관련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장 밖에서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전시 판매

제22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일 농업인과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자동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박순중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전주시 7개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H 분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시상식에 이어 2부 순서로 농업인 한마당 잔치로 꾸며져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소

임을 다해 풍성한 수확을 이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1층 로비에는 '전주시농업인단체 발효과정 졸업생'들의 발효식품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행사장 밖에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인 '전주푸드'의 홍보 판매 코너는 물론, △숙잠누에 전시 △꽃과 어우러진 떡볶이 나누기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 △농업인의 건강을 체크하는 천연약속 코너 등도 운영돼 농업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이 연출됐다. /김민근 기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 실형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노석만 전 전북도의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관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할 원심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전북도의회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

치사업을 A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3차례 1,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하려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신중앙시장 '옷장을 부탁해' 패션쇼

전주신중앙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모델로 변신했다.

전주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과 신중앙시장 상인회(회장 반봉형)는 지난 10일 신중앙시장 특설무대에서 '제3회 옷장을 부탁해' 패션쇼를 개최했다.

맛과 멋이 살아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기존 패

션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전통시장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르신 모델'을 전면에 세워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큰 호응을 얻어왔다.

정장과 캐주얼, 한복 등으로 패션쇼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춘향전 콘셉트로 진행돼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모델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다함께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다. /김민근 기자

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광주교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목사와 지역 아동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신도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서, 카르페디엠 아카데미

덕진경찰서는 10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페디엠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카르페디엠'은 라틴어로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합천배 덕진서장이 바쁜 근무여건 상 자기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매일 저명인사 및 문화예술인을 초청해 특강이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특강은 군산대학교 김성환 교수를 초빙해 '풍요의 원천, 새만금 문화권의 지평도'라는 주제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간척사업 타당성, 추진배경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합천배 서장은 "김성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